

[기획] >> 4면
증명서 발급

[기획] >> 5면
공약 이행 평가 기구

[심층] >> 7면
사이비 종교

[인물] >> 12면
김주표 변호사

대학 증명서 발급,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대학교 증명서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 세 곳이 7년 넘게 수수료를 탄압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증명서 발급 현황△에 따른 문제점스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한소영 기자 09soyoung@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졸업생 직장 적응 프로그램 운영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달 24일 서울 역삼역 인근 모임 공간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초년생들이 원활한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졸업생 23명이 참가해 사회초년생들이 직장에서 흔히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객관적인 대처 방법과 효율적인 이직 전략에 관한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이 능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잡매니저(Job manager)△컨설턴트(Consultant)△통합심리상담사로 구성된 진로취업지원센터 전문가들이 팀을 이끌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박정경 우리학교 글캠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이번에 두 번째 진



▲졸업생 직장 적응 프로그램 진행 모습 (출처: 전라홍보팀)

행되는 본 프로그램에 졸업생들의 참여와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졸업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 취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진로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진로취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취업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센터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우리학교, 쿠바 아바나국립대학교와 교류 협정 체결

우리학교는 지난달 14일 미리암 니카도 가르시아(Miriam Nicado Garcia) 쿠바(Cuba) 아바나국립대학교(University of Havana) 총장(이하 가르시아 총장)과 양교 간 공식 교류 협정을 체결하며 학술 및 학생 교류를 통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루비스레이 곤잘레스 사에스(Rubislei Gonzalez Saez) 쿠바 국제정책연구소 교수△마리오 알수가라이 로드리게스(Mario Abugaray Rodriguez) 주한 쿠바 대사관 대사△리디알리아 코레데라 모랄레스(Alicia Elvira Corredera Morales) 쿠바 국제민족우호협회 이태국장 등 쿠바 측 인사들과 더불어 △김민정 우리학교 재무·대외부총장△신정환 우리학교 중남미연구소 소장△양재완 우리학교 국제교류처장 등 우리학교의 관계자들 또한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다.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은 “이번 협정이 양국 간 상호이해를 높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학생 교류를 위해 두 대

학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국내 최초 중남미 관련 연구기관인 우리학교 중남미연구소와의 연구 협력을 통해 양대 학교 간 학술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르시아 총장은 “이번 협정이 두 학교는 물론 양국 간 다양한 교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한다”며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월 14일 쿠바와 국교를 전격 수립했고 현재 양국 정부는 각각 서울과 아바나에 외교공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 간 외교 수립이 이뤄진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학술 교류 협정은 양국 외교 관계 수립 후 대교 간 맺은 최초의 협정이자 교류 협력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서울우유답게 A2우유에 플러스+까지



1095인인
서울우유 모듬 박은빈

A2 전용목장

100% A2우유

플러스1.
체세포수1등급
세균수1A

플러스2.
EFL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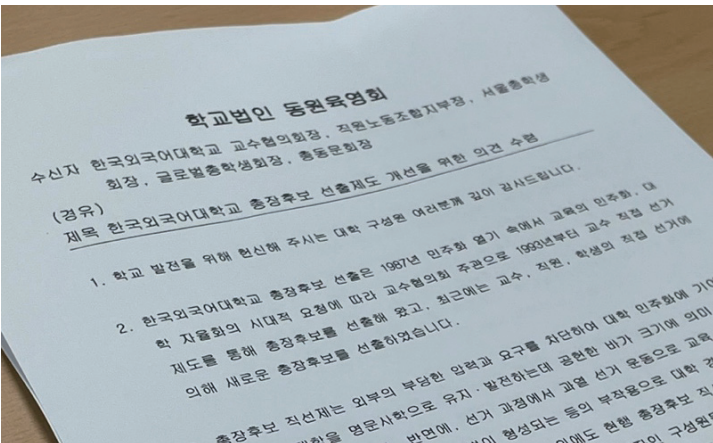
제조원/판매원 : 서울우유협동조합

동원육영회, 총장 선출 제도 개선에 대한 공문 발송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 학교 법인인 동원육영회(이하 학교 법인)는 지난 1월 16일에 개최된 제1차 이사회 회의에서 김종철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의 임기가 이번해 3월 29일부로 만료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6년 3월 30일부터 이번 해 3월 29일까지 8년에 걸쳐 총 2회 이사장직을 역임했으나 지난 2021년에 1회에 한해 이사장을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원육영회 정관 26조를 수정함으로써 이번 회의에서 3연임에 성공했다. 이로써 김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지난 6월 25일 개최된 제6차 이사회 회의에서 총장 선출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이사장은 해당 회의에서 “주요 대학들의 총장 선출 제도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대학들이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 약 3~5명의 후보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총장 선출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해당 회의에선 △간선제△직선제 단점△총장 선출 규정 마련 등이 논의됐으며 이사회는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지난 7월 12일 학교 법인은 ‘총장 후보 선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란 제목의 공문을 △교수협의회장△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생회장△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장△직원노동조합(이하 노조)지부장△총



▲총학생회 측에서 공개한 동원육영회의 공문

동문화장에게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현행 총장 후보 선출 제도에 대한 이사회 의견 제시하며 간선제 등 다양한 선출 제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은 “학교 법인은 해당 공문을 통해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해 법인의 의지대로 총장을 선출하려 한다”고 반발했

다. 또한 지난 7월 26일 글캠 총학과 함께 ‘이사장 김종철은 송고한 학내 민주주의 멸시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작성해 학내 게시판 및 인스타그램(Instagram) 공식 계정에 게시했다. 추가적으로 지난달 22일 양 캠퍼스 총학은 제7차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앞에서 직선제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우리학교 교수협의회는 즉각적으로 해당 공문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선 이사회가 발송한 공문에 대해 ‘직선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간선제를 옹호했다’며 해당 공문의 내용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교수협의회는 해당 성명문에서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복구를 요구했다. 우리학교 노조 또한 학교 측에 성명문을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학교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학교 법인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지난달 22일에 제7차 이사회 회의가 개최됐으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곧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제2교사 준공식 및 개교 20주년 기념식 거행



▲사이버한국외대 제2교사 전경 (출처: 사이버한국외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사이버한국외대)는 오는 27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일원에서 제2교사 준공식 및 개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우리학교의 교육 노하우를 온라인상에 집약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최첨단 온라인 교육 환경△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통해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로 자리매김한 원격대학이다. 사이버한국외대는 개교 2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해를 제2의 도약 원년으로 삼고 신축 교사 건설과 주요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대학의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해왔다.

사이버한국외대는 개교 이래 우리학교와 함께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척하는 데 동행해 왔다. 우리학교 교직원 본인 및 가족 또는 우리학교 재학생의 가족이 사이버한국외대에 입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해 인적 자원 교류를 활성화했다. 특히 올해 양교가 체결한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연계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버한국외대는 정규 입학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수할 수 있는 실무 맞춤형 소단위 전공 과정인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와 우리학교 재학생 대상의 ‘학점교류 계절학기’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이버한국외대는 일반인에게도 재교육과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실용 학문 분야에 주목해 케이뷰티(K-Beauty) 학부’를 신설하고 산업안전·주택관리 학부의 교육과정을 재정비하는 등 ‘외국어 실력을 겸비한 각 분야 전문가 양성’이란 대학의 교육 목표도 확고히 했다.

설캠 인근에 들어서는 사이버한국외대 제2교사는 연면적 2,979.07㎡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가변형 강의실△열람실△학생라운지△화상 세미나실 등을 갖춘 최첨단 시설이다. 특히 지하에 위치한 무인 스튜

디오는 1인 미디어 창작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해 본교는 물론 지역 사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오후 4시 사이버한국외대 제2교사에서 열리는 준공식에 이어 오후 5시 한국외대 오바마 홀에서 개교 2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장지호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은 이와 관련해 “개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교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내외빈을 감사의 마음으로 모실 예정이다”며 “개교 2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에 맞는 제2교사의 준공은 국내 최고의 사이버대학이란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발돋움일 것이다”고 전했다.

장은솔 기자 09eunsol@hufs.ac.kr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실 특명전권대사, 우리학교 방문해 특강 및 세미나 개최

지난달 27일 우리학교는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Azerbaijan Respublikası)의 엘친 아미르바이오프(Eldin Amirobayov) 대통령실 특명전권대사(이하 엘친 대사)를 맞이해 특강과 세미나 등 콜로키움(Colloquium)을 개최했다.

엘친 대사의 이번 방문은 아제르바이잔어를 교육하는 우리학교의 교수진과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성사됐다. 오종진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학과장(이하 오 학과장)과 강준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이하 사업단) 단장(이하 강 단장)과 만난 엘친 대사는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 학과 및 사업단의 교수진과 △몽골△중앙아시아△튀르키예(Turkey) 대학원 학생들을 만나 특강과 세미나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지전략적 가치와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눴다.

엘친 대사는 ‘아제르바이잔의 지전략적 가치: 여제와 오늘’이란 주제의 강의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정치 및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분야가 향후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문화화적△언어적△역사적 유사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공통점이 양국 간 소통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력과 경제력은 향후에 다양한 협력 분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엘친 대사는 “아제르바이잔 관련 전공 학생 및 연구진과의 교류와 협력으로 양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며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김민정 우리학교 재무·대외부총장△김영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대표△신규빈(사회·정의 20) HIMUN 사무총장(이하 신 사무총장) 외 사무국△이은영 IRC 대표(이하 이 대표)△이지연 우리학교 학생·인재개발처장△7개교 대표단 학생들이 참석했다.

HIMUN은 지난 1958년에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모의국제연합이자 외국어 학술 행사로 매년 공개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해로 창립 66주년을 맞은 HIMUN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범대학적 외국어 학술단체로 매년 △각국 대사관△기업△시민단체△정부 기관의 후원을 통해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젊은이들의 학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멕시코△미국△영국△이라크△중국△프랑스 7개국이 참가한 이번 총회는 난민 수용이 국제 사회 모두의 책임이란 입장의 난민 유입국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난민 수용 여건이 갖춰진 국가들로부터 충분한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는 난민 유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뤄졌다.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 HIMUN, 국제적 난민 및 이주민 문제 논의 제48차 모의유엔총회 개최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HUFS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이하 HIMUN)은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이하 IRC)와 공동으로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에서 ‘이주민 및 난민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의제로 제48차 모의유엔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김민정 우리학교 재무·대외부총장△김영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대표△신규빈(사회·정의 20) HIMUN 사무총장(이하 신 사무총장) 외 사무국△이은영 IRC 대표(이하 이 대표)△이지연 우리학교 학생·인재개발처장△7개교 대표단 학생들이 참석했다.

HIMUN은 지난 1958년에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모의국제연합이자 외국어 학술 행사로 매년 공개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해로 창립 66주년을 맞은 HIMUN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범대학적 외국어 학술단체로 매년 △각국 대사관△기업△시민단체△정부 기관의 후원을 통해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젊은이들의 학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멕시코△미국△영국△이라크△중국△프랑스 7개국이 참가한 이번 총회는 난민 수용이 국제 사회 모두의 책임이란 입장의 난민 유입국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난민 수용 여건이 갖춰진 국가들로부터 충분한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는 난민 유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뤄졌다.

지난 90여 년간 난민과 강제 이주민을 위한 인도적 활

동을 펼치온 IRC의 의제 감소로 학술성이 검증된 이번 총회에선 각국 대표단이 국가의 기조와 입장에 따라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는 단순히 이주민과 난민의 수용 여부를 넘어 △각국의 협력 방안△국제기구의 역할△수용된 이들에 대한 관리 정책△이주민과 난민의 범주 재확립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에 기여했다. 이 대표는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의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IRC는 이번 총회의 학술적 논의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 1억 2천만 명의 난민과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다”고 전했다.

한편 신 사무총장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난민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정과 그들의 인권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특히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향민과 강제 이주민의 경우 그들에 대한 논의의 장마저 부족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들이 고향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해결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다양한 국제 분쟁과 인권 문제로 중도가 급부상한 의제를 다룬 이번 총회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유의미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장은솔 기자 09eunsol@hufs.ac.kr

교직원 권리와 복지, 학교 발전을 위한 초석

학교에선 학생과 교수 외에도 많은 교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 법과 교칙으로 규정된 권

리를 보장받고 있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교직원 권리와 복리후생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교직원 권리와 복리후생

대학 교직원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학교의 특성상 방학 기간 중 단축 근무가 가능하고 이른바 준공무원으로서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준공무원이란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부 업무를 공무행위로 보고 공무원 법규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이나 사망 등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28명을 뽑는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교직원 채용에 2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며 서울대 입학보다 취직이 더 어렵단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엔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임금 인상 정체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준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정성 등 다양한 이유로 인기가 감소하며 '신의 버린 직장'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학교의 교직원들은 어떤 대우와 복리후생을 보장받고 있을까.

먼저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근무지엔 △연차△육아휴직△4대 보험 등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학교도 여기에 해당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학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교직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고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모성보호휴가△유산·사산휴가 등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해선 산전·산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유급휴가를 지급한다.

한편 최근엔 법정 외 복리후생제도를 중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 중 55.2%가 '연봉보다 사내복지가 우선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구인 및 구직 플랫폼(platform) 사업인이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2위로 복리후생이 꼽혔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근무 환경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기업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회사에 대

한 만족감과 업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기업도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이직이나 퇴사를 줄일 수 있다.

우리학교 또한 복지의 일환으로 교직원들에게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휴가 8일을 제공하며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는 최소 2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한다. 또 매 10년 이상 근속할 때마다 10일의 장기근속휴가 및 표창장과 부상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에 관한 복리후생제도도 존재한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우리학교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며 우리학교 대학원에 개설되지 않은 전공을 이수하고자 타 학교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자금 절반을 지원한다. 또 △결혼△사망△출산 등 경조사에 대해 경조휴가와 경조비를 지급한다. 교직원의 자녀가 우리학교에 입학할 경우 '외대복지 장학금'으로 8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김나영 인사팀 직원 "이러한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교직원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외에도 다양한 학교에서 교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의 경우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무료로 종합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절반을 감면해 준다. 성균관대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한 생활을 목적으로 교내에 △내과△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 등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엔 △금연상담교실△불안우울상담△비만상담교실 등 특수클리닉도 마련돼 있으며 이를 통해 보건교육과 자기건강관리 능력배양 및 건강한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교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고 재단 산하 평생교육원인 글로벌미래교육원 수강료의 50%를 감면해준다. 또 횡수 제한 없이 자녀의 고교 학자보조금과 대학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학교가 아닌 기업들 역시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LG 전자는 직원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자녀를 위해선 사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입학 선물로 최신 노트북을 제공한다. 산하 프로야구 구단인 LG트윈스의 경기 티켓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한 LG전자는 "직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전시켜 가고 있다"고 전한다.

연예 기획사 하이브(HYBE) 또한 뛰어난 복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 방송된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엔 하이브의 사육 내부 모습이 공개됐다. 단돈 2000원에 푸짐한 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은 물론 수면실과 사내 의원까지 마련된 모습에 출연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이브에서 복리후생 인프라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베네팩 앤 케어(Benefit & Care) 팀은 잡플래닛과의 인터뷰에서 "온전히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일터에선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내면의 잠재력도 발현돼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달성한 성과는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연결돼 개인의 성장과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교를 비롯한 많은 직장에선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직원들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회사는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 확대를 통한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기대해 본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후속보도

학내 공용시설의 청결한 이용, 어디까지 왔나

지난 1080호에선 오염된 교내 공용시설에 대한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이후 학생 자치기구 및 학교 행정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내 공

용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각종 노력과 관련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교내 공용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각종 노력과 관련 현황

우리학교 교내 공용시설에서의 쓰레기 배출 관련 문제는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시험기간에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공개된 도서관 쓰레기통의 사진은 제대로 분리수거 되지 않은 일회용품들이 쌓여있는 모습이었다.

이에 서울캠퍼스(이하 설편)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이번 해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도서관 쓰레기 문제 경감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넛지 프로젝트(Nudge Project)'를 실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온라인으로 '음료수 Beer' 및 'DO NUT use plastic 캠페인'을 진행하고 오프라인으로 △컵 뚜껑△컵 홀더△빨대 분리수거를 위한 넛지 쓰레기통 3종을 비치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참여를 유도했다. 이는 분리수거 항목만을 기재한 기존의 쓰레기통과 달리 우유곽이나 컵홀더에 "당신의 강 의실 선호 좌석은?"과 같이 이른바 밸런스 게임(Balance Game)에서의 질문을 부착해 흥미유발을 통한 일회용품의 올바른 분리수거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활용됐다. 이에 대해 장혜지(영어·영문 22) 씨는 "예전엔 일회용 컵들이 컵 홀더나 빨대가 그대로 끼워진 채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런 게임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참 신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설편 총학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쓰레기통 부족 문제에 대해 학술정보팀과 시설관리팀에 쓰레기통 및 인력 충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명우 설편 총괄지원팀장은 "아직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별도의 결정 사항이 없으며 진행 중인 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쓰레기통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선 김진규 설편 시설관리팀장(이하 김 팀장)을 통해 아직 예산 결적서 작성 단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 팀장은 "가급적 모든 층에 추가 구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쓰레기 배출량이 특히 많은 5층

에 우선 배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음료로 인한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설편 도서관 5층엔 음료수거함이 설치돼있으나 뚜껑이 덮여있지 않아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악취에 취약한 상태이다. 실제로 강형우(아시아·이란어 22) 씨는 "음료수거함이 제때 비워지지 않아 역한 냄새가 난 적이 꽤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설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편)의 경우 공용공간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학교 측의 선제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재 글캠편 학술정보팀장(이하 이 팀장)은 "시설관리팀의 협조를 얻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배준형 글캠편 시설관리팀장은 "시험기간 전 주부터 시험기간까지 2주 동안 도서관과 백년관 열람실의 청소 횟수를 추가하거나 주말에도 미화근무자를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팀장은 "조치 이후 아직은 청결 문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건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생의 의견은 달랐다. 남연우(동유럽·체코어 23) 씨는 "시험기간마다 도서관 쓰레기통은 일회용품으로 넘친다"며 "버릴 자리도 부족해서 바닥에도 버리거나 화장실로 옮겨가서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측의 제재가 존재하지 않는단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 것 같다"며 추가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앞서 언급한 잔여 음료로 인한 악취 문제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에서 사용 중인 음료 수거함의 도입이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 서울교통공사는 자사 소속 지하철 역사 내 쓰레기통에 내용물이 제대로

비워지지 않은 일회용품이 그대로 버려지는 문제로 고민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2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음료 수거함을 도입했다. 이 음료 수거함은 일반적인 쓰레기통 사이에 비치된 스테인리스(Stainless) 관과 생수통이 결합된 형태의 장치다. 해당 장치가 가져온 효과에 대해 광화문역에서 근무하는 청소담당 직원 A 씨는 "뉴스펄펜과의 인터뷰에서 "음료수거함을 수시로 비워낼 정도로 시민들의 협조와 호응이 좋은 편이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만하다. 과거 서울시의 경우 대학 내에서 자체적인 폐기물 감량 방안을 고안하는 이른바 '제로 캠퍼스(Zero Campus)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해당 공모전을 통해 휴대성을 높인 개인 컵과 교내에서 배출되는 택배 상자의 재사용을 유도하는 수거함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돼 활용됐다. 우리 학교 공모전 개최를 통해 효율적인 아이디어 수집과 동시에 학생들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캠편의 경우 기존에 진행된 설편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넛지 프로젝트의 경우와 같이 학생들의 흥미 요소를 고려한 분리수거 캠페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우 (국제지역·러시아 20) 글캠편 부총학생회장은 "도서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설편과 유사한 정책이나 타 우수 사례를 참고해 캠페인을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위한 교내 행정기구 및 자치기구의 노력과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맞물려 더욱 청결한 학교로 변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대학 증명서 발급, 이대로 관찬은가

대학생들은 졸업 이후에도 각 기관에 제출할 증명서를 자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러 장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최근 대학교 증명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 세 곳이 7년 넘게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취업 준비생들

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증명서 발급 현황△이에 따른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증명서 발급 현황

지난달 25일 많은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사용하는 대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발급 시간을 3개 사업자 독점해 지난 7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상호 경쟁을 방지해 서로의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 수수료 및 증명 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했다. 이후 증명 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다른 회사와 거래중인 대학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고 각 사의 영업 담당자들 간에도 스메일·문자·전화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당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교의 재정을 낭비하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한 행위이다”며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 2022년 5월까지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밀약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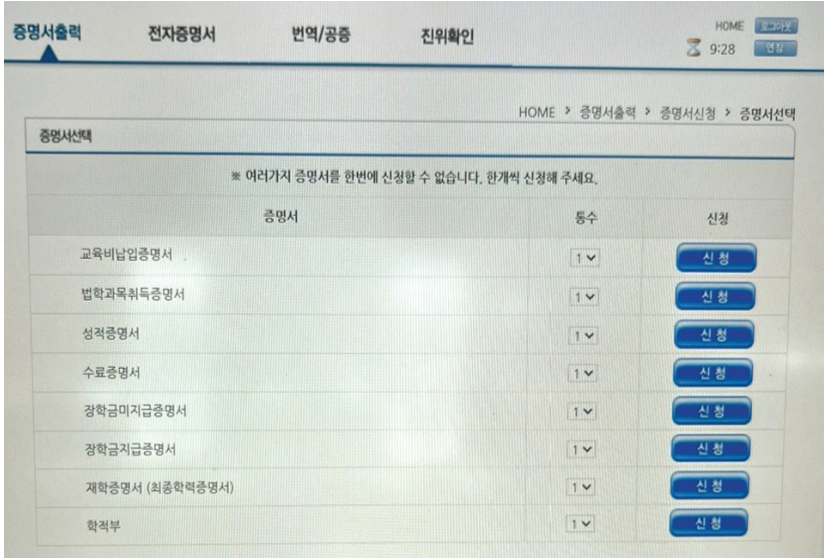
증명서는 △대학원 진학△비자 신청△유학 및 해외 취업△자격증 취득△취업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인다. 이는 졸업한 이후에도 빈번하게 사용되며 우리학교 또한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작동되는 이 발급기는 현재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경우 국제학사 1층 114호 원스톱서비스센터 앞에 두 대가 있고 글캠의 경우 학생회관 1층 로비에 한 대가 비치돼 있다. 우리학교에서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로 무인수료발급과 인터넷증명발급이 있다. 먼저 무인수료발급의 경우 기기를 통해 총 8종류의 서류를 발급 가능하며 서류 하나 당 500원이다. 한편 인터넷증명발급의 경우 다시 단순 증명서 출력과 전자 증명서 발급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는 1,000원의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돼 최종적으로 한 장당 1,500~2,000원 가량의 대행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한 증명서 발급은 조회 및 출력이 1회로 제한된다. 반면 원본 PDF 파일로 발급되는 전자 증명서의 경우엔 3,000원의 대행 수수료가 포함돼 한 장당 3,500원~4,000원 가량의 결제금액이 책정되며 제출처가 기재된 채 발급된다.

◆이에 따른 문제점

이러한 증명서 발급 서비스엔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무인 수료 발급의 경우 발급 기관이 한 곳인 점과 기기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증명서를 뽑으러 학교에 방문해도 기기가 비치된 곳이 한정돼 있으며 기계가 자주 망가지는 탓에 헛걸음을 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A 씨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 학교에 방문했는데 기계 두 대가 망가져서 발급을 못 받았다”며 “방학이기도 하고 늦은 시간이라 직원도 없어서 증

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불편했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인터넷증명발급 또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4일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는 증명서 가격과 제출처로 인한 불편함을 담은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먼저 “인터넷증명발급은 한 장에 3,500~4,000원이라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상술했듯 우리학교에서 PDF로 원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3,000원이란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실제로 외대 학보에서 진행한 우리학교 관련 설문조사에서 32.3%의 학생은 ‘우리학교 증명서 발급에 따른 전반적인 수수료가 매우 비싸다’고 답했으며 54.8%



▲인터넷증명발급 진행 화면

의 학생은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해 약 90%의 학생들이 증명서 수수료의 가격이 비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고진영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원스톱서비스센터 직원(이하 고 씨)은 “우리학교는 재학생은 500원 그리고 졸업생은 1,000원이라는 증명서의 원가액을 설정해 약 20년 간 가격을 변동하지 않았다”며 “대행 수수료의 가격이 올라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인터넷증명발급을 했음에도 또 다른 문제를 겪게 될 수 있다. 먼저 제출처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전자 증명서 발급 과정이 학생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에타 게시글의 작성자는 “다른 회사 이름이 제출처로 적힌 문서를 낼 수도 없으니 매번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며 불편함을 전했다.

한편 단순 증명서 출력과 관련해서도 불만이 존재했다. 여러 장을 출력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를 중복으로 부담해야 한단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임경은(통번역·태국어 22) 씨는 “감사 자격을 위해 인터넷증명발급으로 여러 건의 문서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건당 책정된 수수료가 부담이 됐다”며 “인터넷증명발급을 앞으로도 종종 이용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뽑는다면 다른 학우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추가로 발급 과정에서의 오류에 따른 문제도 존재했다. 앞서 상술한 외대학보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B 씨는 “인터넷증명발급을 통해 단순 증명서 출력을 진행할 때 인쇄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접속을 하는 과정에서 증명서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증명서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회사의 담합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담합을 금지한다면 사업자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을 촉진해 수수료 감면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제재 및 처벌로는 부당이익 환수와 과징금 부가가 있다. 이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매출액을 어떻게 정확히 추산할 것인가를 정립해 확실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앞서 언급한 담합 적발 사례에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진행한 바 있다.

오프라인 발급 기관 문제의 경우 우리학교 양 캠퍼스 원스톱서비스센터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면 보다 나은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경우 △공학관△멀티미디어교육관△우정원△학생회관 등 다양한 공간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어 기기 고장 등과 용지 부족의 이유로 증명서를 뽑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에 고 씨는 “학교 측에서 생긴 민원 요청과 서비스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하지만 투입 가능한 재원에 한계가 있어 한도 내에서 학생들이 더 나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타 학교 C 씨는 “취직 준비를 위해 면접에 필요한 대학 증명서 발급을 받을 때 용지가 부족해 발급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대학교에서 발급받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이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학교 증명서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자산이자 귀중한 정보로 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역할을 한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만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발전되길 기대한다.

한소영 기자 09soyoung@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5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5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4.09.25(수) ~ 10.08(화)	2024.11.06(월) ~ 11.20(수)
고사장 발표	10.16(수) 15:00	11.27(수) 15:00
면접전형	10.19(토) 10:00 예정	11.3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31(목) 15:00	12.12(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04(월) ~ 11.08(금)	12.16(월) ~ 12.20(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상황, 신청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접수 시기에 따라 특별전형은 1차모집, 일반전형은 2차모집으로 보면 됩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가.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나.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경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며 불합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해외에 계시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면접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화상면접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서류제출 시 교차처 문의 바랍니다.

-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소재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 8. 기타사항
-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 (별도의 조기졸업심사 진행)
- 나. 3학기 졸업 트랙 운영
- *논문(24 학점 이수), 연구보고서(28학점 이수), 추가학점(32 학점 이수)
- 다. 장학금 : 성적우수/우수외국인/동문/근로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4.09.23(월) ~ 10.04.(금)	2024.11.04.(월) ~ 11.15.(금)
면접전형	2024.10.19.(토) 10:00	2024.11.30.(토) 10:00
합격자 발표	2024.11.01.(금) 16:00 예정	2024.12.13.(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4.11.04.(월) ~ 11.08.(금) 예정	2024.12.16.(월) ~ 12.20.(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국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역사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일본어교육 •일반사회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어린이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문화콘텐츠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 나.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아플라이 Uwayapply.com)
-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투표와 맞바꾼 어음, 이전 실현돼야 할 때

매년 우리학교 학생들에겐 차기 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공청회 및 정책자료집을 통해 공약을 공개하며 투표의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과대학 학생회에서선 관련 기구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감시가 부재하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약 이행 평가 기구의 설치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공약 이행 평가 기구의 설치 현황

공약 이행 평가 기구란 당해 학생회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언급된 공약들의 실제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선 총학생회칙에 기반해 중앙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중공평위)를 뒤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공약 이행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양어대학 학생회 역시 회칙에 존립 근거를 명시해 해당 기구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해당 기구는 본래 과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한 공약 이행 평가 기구였으나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공약 이행 평가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게 됐다. 이외에도 사회과학대학(이하 사회대) 학생회는 교육자치국 차원에서 월별 공약이행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곤 실제 공약 이행 점검만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 총학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공약 이행 정도를 확인하고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서 관련 보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글캠 총학의 홈페이지엔 ‘총학생회 공약’이란 명칭의 게시판이 존재하나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란 안내 문구만 표시돼있는 상황이다. 회칙에서도 관련 기구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캠 내 단과대학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임현성(응인 22) 융합인재대학 학생회장은 “총회 형태의 단과대학 주치의 행사에서 학생회 활동보고와 견해 관련 보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유로 “단과대학 차원에서 스스로 공약 이행 평가 기구를 구성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의적 평가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설립이 필요하다면 중앙감사위원회와 같은 상위단위 차원에서의 기구 설치가 이뤄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련 기구의 미비는 자칫 공약 이행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짐으로써 공약을 보고 투표한 유권자에게 선거 자체에 대한 효용감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노연정(중국·중언문 22)씨는 “항상 공약을 보고 투표에 참여하지만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답했다”며 “필요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에게 진정성을 갖고 권리를 행사한 유권자의 입장에서선 다소 아쉬운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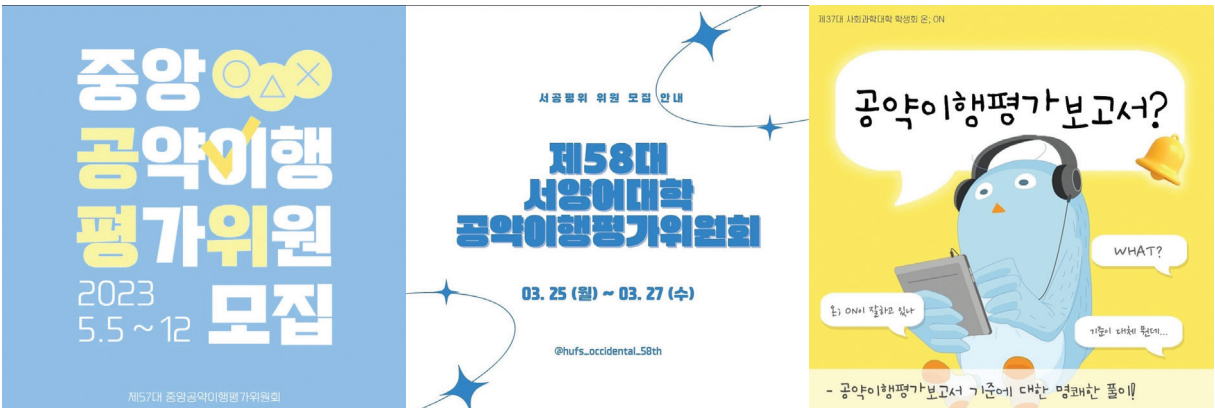
◆나아가야 할 방향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단과대학 학생회 차원에서 공약 이행 평가 기구를 정례화하는 노력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임시 기구에 그친다면 해당 문제가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기에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정기총회에서 회칙의 형태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학내에 설치돼있는 공약 이행 평가 기구의 체계를 참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중공평위

기 및 임시 서양어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평가위원 본인이 속한 학과의 공약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정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다.

반드시 기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학생회 국서로의 기능적 통합이 이뤄지는 것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대 학생회의 사례처럼 국서 차원에서의 업무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내에서 교육 관련 기능을 관장하는 부서에게 업무 분장을 진행하는 형태로 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신진호(사회·정의 23) 사회대 학생회 교육자치국장은 “지난해 중공평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유권자로서 학우들의 공약 이행 여부에 관한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며 월별 공약이행평가보고서 발간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자체적 공약 이행 평가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 대해선 “집행위원회 차원에서의 공약 이행 평가 보고서 작성과 더불어 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노력 역시 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단순한 제도적 정비 이상으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상세한 내용 설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사회대 학생회의 경우 보고서의 내용을 일반 학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업로드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행 여부 분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척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학생들의 이해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단위 대표자로서 공약뿐만 아니라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 역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약을 어음으로 해 학생 대표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 만큼 이를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기구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이를 학생회 스스로의 발전 동기로 삼을 수 있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종 공약 이행 평가 기구(출처:△중공평위△서양어대△사회대 인스타그램)

의 경우 총학생회칙 137조 및 138조를 통해 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완료△정상추진△일부추진△보류△폐기 다섯 가지의 척도로 공약 이행률을 평가한다. 이후 △완료△정상추진△일부추진으로 분류된 공약의 경우 이행된 것으로 분류하고 보류 및 폐기로 분류된 것은 미이행으로 분류해 최종적인 공약 이행률에 대한 산출이 이뤄진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각 단과대학 학생회칙의 실정에 맞게 변용한다면 상시적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제58대 중공평위 위원장단은 “중공평위의 평가 지표는 5개의 척도로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단과대학의 공약 이행 상황도 충분히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 중 일부추진과 정상추진의 경우 30%나 50% 등 수치로만 나타나 있어 위원 개인별로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단 문제가 있다”며 “단과대학에서 지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세밀한 예시를 들어 평가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서양어대학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서공평위) 역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서공평위는 서양어대학 운영위원회 중 2인이 위원장단을 맡게 되며 일반 위원은 공개모집을 진행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후 중공평위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해 공약 평가가 이뤄지며 이를 정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5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2023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4.09.23(월) ~ 10.07(월)	2024.11.01(금) ~ 11.15(금)
고사장 발표	2024.10.16(수) 15:00	2024.11.27(수) 15:00
면접전형	2024.10.19(토) 10:00 예정	2024.11.3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4.10.31(목) 15:00	2024.12.12(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4.11.04(월) ~ 11.08(금)	2024.12.16(월) ~ 12.20(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북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아. 추가학점아수트랙선설
(논문·출판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한국외국어대학교TESOL대학원교학과

TEL.02-2173-3521~2FAX.02-2173-358

(우)02450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4. 9. 20(금) 09:00 ~ 9. 26(목) 16:00	2024. 11. 5(화) 09:00 ~ 11. 11(월) 16:00
면접전형	2024. 11. 2(토) 10:00부터	2024. 12. 7(토) 10:00부터

※ 접수방법: ①온라인 원서접수→②입학원서 출력본 및 기타 지원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③지원자 유의사항 및 면접장소 확인→④구술(면접)시험 응사→⑤합격자 확인



◆ 지원자격

1. 특별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로 학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3.5(5.0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4.0(5.0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 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2. 일반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 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http://gra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우편제출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 입시문의

02)2173-2386, 2397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mour, Les Baguettes, Paris

학창시절부터 프랑스어는 내게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게 느껴졌다. 이러한 프랑스어에 대한 환상은 곧 '프랑스어교육학'이란 전공 선택으로 이어졌다. '에필리, 파리에 가다'를 보며 꿈꿨던 파리로의 교환학생은 내 오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 홀로 낯선 곳에 가는 것은 22살의 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 낯선 곳에 있던 것의 단점은 나 혼자라는 거였지만 장점 또한 혼자라는 것이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파리 곳곳을 돌아다녀보니 내 내면에 여유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홀로 지내는 시간도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레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파견 될 학교는 동아리나 소모임이 많은 '파리가톨릭대학교 (Institut Catholique de Paris)'를 선택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과 점심시간마다 학교 옆의 룩상부르(Luxembourg)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여유를 즐겼던 기억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파리의 장점 중 하나는 예술을 밀접한 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트루브르(Louvre) 박물관오랑주리(Orangerie) 미술관오르세(Orsay) 미술관 등에서 매번 다른 기획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다.

파리에 사는 동안엔 사소한 순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길거리에서 낚은 악기를 들며 자유롭게 연주하는 어르신들△노을 지는 센느(Seine) 강에서 키스하는 커플△무심코 들어간 재즈 바에서 마시던 와인△에펠탑(Tour Eiffel) 앞 마르스(Mars) 광장에 혼자 앉아있을 때 말을 걸어 친구가 된 프랑스인 할아버지△하갯길에 뽕집에 들러 단돈 3유로에 산 빵 3개 등 도시의 느낌도 강하지만 그 속에 여유가 깃든 파리는 내게 있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다.

물론 생활하다보면 꿈꾸던 파리와는 사뭇 다른 현실을 마주하기도 한다. 우선 터무니없이 비싼 물가로 인해 집을 구하는 것부터 녹록치 않았다. 기숙사는 반년 전부터 이미 마감된 상태라 출국 직전에 아파트식 자취방인 '스튜디오(Studio)'를 따로 구했었다. 그러나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월세가 무려 250만 원이었다. 게다가 외식비도 비싸서 약속이 있는 게 아니면 대부분 직접 요리해 먹거나 빵으로 때우곤 했다. 어찌면 체류 기간 동안 프랑스어보다 요리 실력이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단 생각도 든다. 게다가 △느린 행정처리△두번의 소매치기△비위생적인 거리△폐쇄적인 사람들 등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파리에서의 생활을 통해 나를 한층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며 보다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확장된 시야를 얻게 됐다. 덕분에 내가 어떤 일에 자신이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깨닫고 더 파고들 수 있었다. 그 끝에 우리나라에 귀국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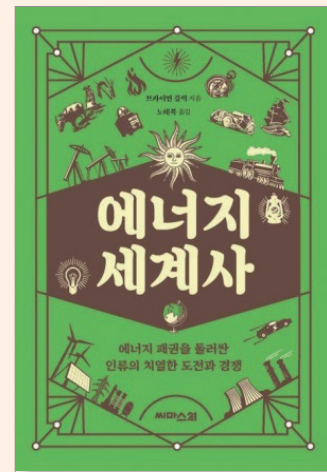
지 두 달 만에 주요 기업에서 6개월 간 근무하게 됐다. 파리에서의 경험은 훗날 겪게 될 힘들고 버거운 순간들에서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다. 비행기를 타기 전 난 마지막으로 에펠탑을 바라보며 이곳에 다시 꼭 돌아오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러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발전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서현(사법·프교 21)

미국

<에너지 세계사>

-에너지와 인간, 그 불가분의 관계에 대하여-



'에너지 세계사'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역사 및 환경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브라이언 블랙(Brian Black)의 작품으로 에너지 문제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풀어냈던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의 작품은 △에너지와 권력△자원 불평등△지속 가능성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며 에너지 문제를 사회적 및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현대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이 책의 첫 번째 주제는 풍력 에너지와 인류의 욕망이다. 16세기 유럽에선 풍력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동력원으로 사용됐다. 이는 결국 신대륙의 발견과 식민주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인간의 욕망과 에너지 발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에너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지배욕과 결합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다.

책의 중반부에선 전기 에너지와 평등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전기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은 초기엔 상류층과 산업 자본가들의 전유물이었으나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의 전기 발명 이후 대중에게도 보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자는 이를 단순히 기술의 발전으로만 보지 않는다. 에디슨의 발명이 전기를 대중화시킨 점은 인정하면서도 전기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부를 가진 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며 불평등에 기여한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에너지 패권의 변화를 설명하며 석유 자원 확보가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킨 주요 원인임을 강조한다. 에너지 패권을 쥐기 위한 국가 간 경쟁 특히 중동 지역의 석유를 둘러싼 충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됐으며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저자는 풍족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가 반드시 번영하진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천연자원조차도 정치적 영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를 특정 관점에 국한하지 않고 바라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에너지를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경제△사회△정치적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며 지속 가능하고 인류의 번영에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시선 변화를 유도한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차원적 접근을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5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4.09.23(월) ~ 10.07(월)	2024.11.01(금) ~ 11.15(금)
고사장 발표	2024.10.16(수) 15:00	2024.11.27(수) 15:00
면접전형	2024.10.19(토) 10:00 예정	2024.11.3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4.11.01(금) 15:00	2024.12.13(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4.11.04(월) ~ 11.08(금)	2024.12.16(금) ~ 12.20(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의회행정학과(공공정책, 의회행정)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군사 안보 전문 분야(예: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대학원 입학 안내-대학원 원서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장학금 수혜자 및 금액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공로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 입학생 전원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TEL. 02-2173-2428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TEL. 02-2173-2428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lobal and Public Leadership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5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원서접수	24.09.09(월) ~ 24.10.08(화)	24.10.31(목) ~ 24.11.20(수)	유희이아름다워 원서접수
서류제출	24.09.09(월) ~ 24.10.08(화)	24.10.31(목) ~ 24.11.20(수)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 이선대학원 (대학원 111호)
면접시간 공지	24.10.16(수) 15:00	24.11.27(수) 15:00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면접전형	24.10.19(토) 15:00	24.11.30(토) 10:00	화상면접
합격자발표	24.10.24(목) 15:00	24.12.05(목)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4.10.28(목) ~ 24.10.30(수)	24.12.09(월) ~ 24.12.11(수)	우리은행 전국 지정 가상계좌 납부가능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미디어 비즈니스, 디지털 커머스
나. 데이터·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라. 엔터테인먼트·K-컬처
다. MET(Media, Entertainment, Technology)
*MET는 유학생(순수 외국인) 전담 학과

3.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MET전공의 경우 부모의 국적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만 지원 가능*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 화상면접(추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청년층 노린 사이버 종교, 교묘한 유혹의 덫

최근 사이버 종교 단체가 청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포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가에서 활동하며 청년들에게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거나 종교 세뇌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성범죄

와 사회적 고립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기사를 통해 △청년층을 겨냥한 사이버 종교 문제 현황△포교 방식과 사이버 종교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층을 겨냥한 사이버 종교 문제 현황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이들을 겨냥한 사이버 종교의 포교 활동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종교는 정상적인 종교와 유사한 겉모습으로 가장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집단을 일컫는다. 이는 이단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단은 기독교계에서 주로 쓰는 표현으로 정통 교리와는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종교 단체를 일컫는다. 반면 사이버 종교의 경우 기존 종교 또는 이단과 유사해 보이거나 신앙 또는 예배를 목적으로 한 종교 단체가 아닌 사기 집단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재은 종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는 성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사이버 단체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와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등은 자신만의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 착취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어 사이버적 요소가 강하다”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가 대학가 사이버 포교 실태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캠퍼스 내부 또는 근처에서 사이버 종교 포교를 당하거나 포교하는 것을 목격한 학생들의 비율이 71.7%에 달했다. 또한 ‘대학 내 사이버 종교 포교활동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답으로 △‘매우 그렇다’가 29.2%△‘그렇다’가 30.2%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지영(영어·영문 24) 씨는 “등굣길에 길을 묻는 여성에게 길을 알려줬더니 가절의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심리검사를 빌미로 계속해서 쫓아왔다”며 “앞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일이 또 생길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청년을 주요 타겟으로 포교하는 이유에 대해 조하나 부산성서화운동본부 이단 상담소(이하 이단 상담소) 실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청년들은 취입과 연애 등 고민이 많다 보니 사이버 종교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탁지일 이단 상담소 소장(이하 탁 소장)이 기독교TV 뉴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단 상담소를 찾은 내담자 895명 중 20~30대의 수가 5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내담자 중 6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포교 방식과 사이버 종교의 문제점

사이버 종교의 가장 흔한 포교 방식은 길거리에서 청년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앞선 서언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8.9%의 학생들이 대화 시도의 수범으로 사이버 포교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사이버 신도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길거리△역 근처△학교 등의 장소에서 설문조사를 요청하거나 무료 심리검사를 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한다. 특히 이들은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 진단과 MBTI 검사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흥미를 끈 뒤 사이버 종교를 권유한다. 사이버 종교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자 종교와 관련 없는 단체로 위장해 접근하는 것이다. 신도들은 포교 대상자의 △거주지△생년월일△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를 묻고 △가족관계△관심사△학교생활 등 사적인 영역을 공유하며 친밀감을 형성한 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년간 포교한다. 이처럼 사이버 신도들은 포교를 위해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이 계획적으로 활동하기에 피해자는 합리적 의심이나 객관적 사고를 하기 어렵다. 또한 사이버 단체임을 알아채고 연락을 끊으려 해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이어진 인간관계에 휘둘려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동아리와 소모임으로 위장해 포교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난다. 실제로 탁 소장은 상술한 인터뷰에서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란 말과 함께 접근하던 과거의 포교 방식과 달리 최근엔 ‘관계 맺기’를 통해 포교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스네이버 카페△에브리타임△캠퍼스픽 등

에서 학생을 모집한 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교리 공부와 성경 세미나 등을 권유한다. 사이버 종교와 연관 있다고 지목된 동아리 분야는 △춤△맛집 탐방△심리상담△여행△유기 동물 봉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1980년대 JMS 신도로 활동했던 정이신 목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사이버 종교는 대학생이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으로 욕구와 흥미를 충족시켜 천천히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을 착취함으로써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다. 신도들은 사이버 종교 단체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착취당한다. 일반적으로 신도들의 금전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천지는 전도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경우 신도 개인에게 100만 원이 넘는 금전 납부를 강요했다. JMS의 경우 ‘성전 건축 헌금’ 등의 명목으로 대학생 신도들에게 제2·3금 용권 대출을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 사이버 종교는 청년들의 노동력도 착취한다. 실제로 JMS는 ‘섭리 기업’이라는 JMS 관련 기업에서 신도들을 무임금 노동에 차출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며 청년 신도들을 사이버 종교의 자금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했다. 사이버 단체에서 성적인 착취가 일어나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 JMS의 교주는 젊고 키가 큰 여자 대학생을 모아 ‘신앙 스타’란 단체를 만든 뒤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한편 동아리를 통한 사이버 종교의 포교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동아리가 사이버 종교라는 의심 받는 일이 발생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영화동아리 ‘썬슬틸러’는 홍보 게시글에 임원진 신상 등의 정보가 부족하던 이유로 사이버 종교 동아리란 의심을 받았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 종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공유되며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뚱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해님(사회·정외 24) 씨는 “평소 독서를 즐겨 새학기를 맞이해 독서 동아리에 새로 가입하려 했다”며 “그러나 가입하려던 동아리가 1기 회원 모집 중이라는 점과 신청서에서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묻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결국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이버 종교는 다양한 포교 수법을 이용해 청년들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동아리 운영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는 청년들을 사이버 종교에 빠지게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이버 종교의 포교가 기승하는 데 반해 학생들을 보호할 법률은 현재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사이버 종교의 불법적인 포교와 범죄 활동을 규제할 법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유사종교피해방지 특별법이 현재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해당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이홍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지난 2021년 4월 제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포교 처벌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기 포교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학교 차원에서 동아리를 가장한 포교하는 사이버 종교가 문제될 경우 각 캠퍼스의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가 이를 사이버로 판명하고 제명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성신여자대학교 동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성신여대 동연 비대위)는 JMS 활동이 제보된 댄스 동아리를 제명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9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성신여대 동연 비대위는 “해당 동아리가 지난 17년 동안 위장 동아리로 활동한 사실을 목인할 수 없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제도적·사회적 차원의 노력 외에 개인 차원에서도 사이버 종교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종교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서서히 관계를 맺으며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최근 사이버 종교의 특성상 경각심이 쉽게 무뎌질 수 있다. 먼저 행사 또는 동아리에서 종교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면 일단 관계를 멈춘 뒤 해당 단체의 진상에 대해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면 바로 관계 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관리 또한 중요하다. 실제로 탁 소장에 따르면 사이버 종교에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것만으로 대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때문에 종교 관련 △강의△동아리△행사에 참가 시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전 강사 또는 단체 주장 등이 어떤 종교 단체나 교단에 속한지 확인함으로써 사이버 종교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청년들의 경우 사이버 종교의 표적이 되기 쉽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관계에 대한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종교의 호의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심리적·사회적으로 취약하다는 생각

이 든다면 믿을 만한 상담 기관을 이용하며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사이버 종교에 피해를 받았더라도 이를 숨기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탁 소장은 “사이비에 피해를 입었더라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건강하게 노출하고 도움을 받는 편이 피해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고 조언했다. 청년층을 위협하는 사이버 종교의 포교 방식에 더 이상 청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와 개인의 경계와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표현의자유 vs 범죄의 온상... 양날의 검 텔레그램

텔레그램(telegram)은 침해가 만연한 디지털 사회 속 정보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고 높은 기업가치를 형성했다. 하지만 동시에 범죄자들에게 악용되며 각종 범

죄 사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텔레그램의 정의와 현황△표현의 자유 vs 범죄의 온상.. 엇갈린 반응△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텔레그램의 정의와 현황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파벨 두로프(Pavel Durov) (이하 두로프) 텔레그램의 최고 경영자(CEO)가 체포됐다. 텔레그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Open Source) 메신저 프로그램이다. 러시아 출신 두로프는 형 니콜라이 두로프(Nikolai Durov)와 함께 지난 2013년 처음 텔레그램을 출시했다. 강력한 보안성으로 유명해진 텔레그램은 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월간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고 약 5년이 지난 2018년 3월 말엔 사용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했다. 지난 8월 기준 텔레그램의 월별 이용자 수는 약 9억 5000만 명을 달성했으며 현재는 10억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과 구별되는 텔레그램만의 특징은 철저한 보안성이다. 텔레그램은 ‘일반 대화’와 ‘비밀 대화’ 두 가지 방식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일반 대화의 경우 다른 메신저 앱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하지만 비밀 대화를 이용할 경우 철저한 보안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종단 간 암호화란 발신부터 수신까지의 여러 단계에서 암호화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대화를 주고받는 단말기끼리만 암호 해독이 가능하기에 서버(server)는 암호화한 대화 데이터(data)를 전송할 뿐 내용을 해독할 수는 없다. 즉 발신자와 수신자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중간에서 가로채 대화의 내용을 해독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실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버를 통해 메시지를 절대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자동으로 대화를 삭제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보안성이 더욱 뛰어나다. 이처럼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으로 유명해지며 하루가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표현의 자유 vs 범죄의 온상.. 엇갈린 반응

이런 텔레그램이 가진 보안성의 순기능은 결코 적지 않다. 정부의 메신저 검열이 만연한 △러시아△베네수엘라△이란△홍콩 등에서 반정부 민주화 세력의 소통 도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악의를 품은 범죄자들의 안전한 놀이터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n번방 사건’으로 불린 디지털 성착취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통 사건’은 모두 텔레그램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즉 텔레그램은 그 활용에 따라 자유로운 표현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한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 셈이다.

이와 같이 텔레그램의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두로프 체포를 둘러싼 시선도 첨예하게 갈린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플랫폼의 대표를 체포하는 이슈에서 나아가 국제적 논쟁으로 확장돼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형 소셜 미디어의 CEO가 법적으로 체포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먼

저 프랑스 당국은 텔레그램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두로프 체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에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법치주의 국가에선 실제 생활과 마찬가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시민 보호 및 기본권 존중을 위해 법이 정한 틀 내에서만 자유가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텔레그램이 기본권 보호에 소홀했던 탓에 사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취지다. 페이스북(Facebook)의 대(對)테러 책임자로 일했던 브라이언 피시먼(Brian Fishman) 또한 프랑스 정부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세웠다. 그는 미국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인터뷰에서 “텔레그램은 지난 10년 동안 극단주의 무장 단체인 이슬람 국가(IS)의 핵심이었고 아동 성 학대 게시물을 유포해 왔으며 각국 사법부의 합리적인 법 집행을 무시해 왔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두로프 체포에 대해 “콘텐츠 검열의 차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콘텐츠 관리에 소홀했다는 게 아닌 ‘자유 및 사생활 존중’이라는 명목 아래 최소한의 관리조차



▲텔레그램 로고 심볼

하지 않는 운영 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단 의미다. 즉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범죄 행위는 이를 운영하는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이번 체포를 부정하는 반론도 존재한다. 일론 머스크(Elon Musk) X 소유주는 “미국 등 자유 진영의 헌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두로프 체포에 대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중엔 밈(meme)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대선에 출마했다가 트럼프(Donald John Trump)와 단일화한 미국 정치인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또한 “두로프의 체포는 프랑스 정부의 과도한 통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동영상 스트리밍(streaming) 플랫폼 럼블(Rumble)의 크리스 파블로브스키(Chris Pavlovski) CEO도 “검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각에선 각국 정부가 특정 플랫폼을 억압하려 할 때 프랑스의 선례를 명분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지난 4월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Embrain Trendmonitor)가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는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텔레그램 관련 사용 행동 및 패턴 조사(U&A)조사’를 실시한 결과 텔레그램의 보안 기능이 타 메신저 대비 큰 강점으로 여겨지면서도 범죄 악용에 대한 불안감 역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조사 중 긍정적 측면에서 62.1%는 “텔레그램 보안 기능은 타 메신저 대비 큰 강점이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 71.9%는 “보안이 뛰어나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본 조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범죄에 취약하단 점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역시 BBC뉴스에서 텔레그램의 극단주의 및 불법 콘텐츠에 대한 관리가 다른 SNS나 메신저 앱보다 상당히 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텔레그램을 통해 각종 범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직업군은 텔레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인△정치인△제약사 영업사원△증권가 애널리스트 등은 보안상 이유로 이를 즐겨찾는다. 카카오톡처럼 대중성을 갖진 않지만 일부 집단에선 비밀주의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증권사는 텔레그램 채널을 공식적인 소통 장치로 활용한다. △메리츠증권△유안타증권△하나금융투자 등 다수의 증권사들은 자체 채널을 통해 △리서치(research) 보고서△시황 정보△요약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 애널리스트와 고객의 면대면 접촉에서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할 수 있단 점은 이득이 된다.

이상과 같이 ‘범죄의 온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텔레그램이 가진 양면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두로프에 대한 프랑스 사법 당국의 수사가 향후 어떻게 귀결될지도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워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텔레그램의 사용을 제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텔레그램으로 인한 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를 활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를 처벌할 법안과 대응책 또한 아직 확실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보안에 따른 자유와 규제에 따른 안전이란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www.사사한줄토픽.com

정치 | 대통령실, 여당 의대 증원 유예 제안 거부

국민의힘이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을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다음해 정원을 1,509명 늘리기로 한 방안은 유지하되 2026년 진행될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말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례적으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며 힘을 실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진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대통령실 또한 “대학 입학 정원은 2년 전에 결정해야 하기에 2026년의 정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국민의힘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라며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사회 |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장병들이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안건을 의결한 계기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며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던 국군의 날은 34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3일 동안 휴가를 내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게 소비자와 유통업계는 모두 이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해외여행만 늘어날 경우 내수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단 비판도 제기된다.

경제 | ‘금사과’ 대신 ‘금채소’ 이번 추석 차례상 비용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에서 사람들이 집었던 채소를 다시 내려놓고 있다. 지난해 높은 가격으로 인해 ‘금사과’라고 불리기도 했던 사과는 지난해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이번엔 채소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집중호우와 오랫동안 지속된 폭염으로 한 포기 7천 원을 넘기기도 했던 배추는 정부가 비축분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6천 원 선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시금치의 경우 작년에 비해 70% 가까이 가격이 뛰며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시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네는가 하면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 가격을 내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제 | 기시다 총리 방한, 열두 번째 정상회담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이하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러한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하면서 퇴임을 앞두고 있기에 두 정상 간 마지막 회담이 될 것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 차 방한을 적극 희망하여 성사되었다”고 밝혔다.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만나는가 하면 부부 동반 만찬을 즐기기도 했다. 1박 2일 일정을 마친 후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SNS에 “저와 윤 대통령의 결정으로 한일관계가 역사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며 “서를 외교를 부활시켜 열두 번째 회담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별다른 진전을 가져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상속권 상실제도 구하라법,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명하기 위해선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6년이란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구하라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선 △주요 내용과 입법 과정△법적 배경과 사회적 반응△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구하라

법이 부모의 책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어떤 사회적 기대와 우려가 있는지 박희호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자.

박희호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Q1. 구하라법이 통과된 배경과 주요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미 △대양호△세월호△천안함 사건 이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보상금△보험금△연금 등을 수령할 의도로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해 그 제한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 다. 이후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그녀의 이름을 딴 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습니 다. 주 요 목적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크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 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Q1-1. 구하라법이 기존의 상속 법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도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 우 상속결격 사유로 구분돼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했으나 어린 자녀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의 경우엔 별도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 없어 상속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구하라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 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상속 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됐습니 다.

Q2. 법안의 주요 내용 중 자녀의 상속권에 대한 규정은 어떤 방식으로 변경됐나요?

기존의 상속순위 및 범위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규정에 의거해 상속권을 갖게 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권리를 박탈해 상속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속된 재산을 반환 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됐습니 다.

Q3. 부모의 상속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예상되는 법적 또는 실질적인 변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상속을 받기 위해선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학대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해당 법률에 따라 상속을 못 받을 수 있 습니다. 특히 이혼한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부 양의무 이행을 촉진하거나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Q4. 구하라법은 유류분 제도**를 개선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분을 보장하고 부모의 상속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실제로 상속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가 궁금합니다.

현 유류분제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 구하라 씨(이하 구 씨)가 유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증여한다고 했어도 생모는 구 씨 오빠보다 상속순위가 앞선 직계존속이므로 상속권을 갖고 있어 그 상속재산의 3분의 1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유류분 규정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단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구하라법에서 양육 의무 등을 위반한 상속인은 해당 지위가 박탈돼 유류분권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사안에 적용해본다면 구 씨의 생모는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고 다음 순위인 구 씨의 오빠가 상속인 및 유류분권자가 되 게 됩니다.

Q5. 구하라법의 시행은 오는 2026년부터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일인 지난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상속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구하라법은 오는 2026년에 시행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은 일종의 위헌결정으로 그 결정이 있었던 지난 4월 25일부터 유류분에 관한 조항은 적용이 중지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같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선 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라 소급해 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그 개정 내용이 헌법불합치 결정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기에 곧 개정될 유류분에 관한 조항과 동일한 시기에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발생한 사건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 관련 사안에 대해선 2026년 이전이더라도 구하라법이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5일 이후에 자녀가 사망했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해 재산과 관련한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권의 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반환됩니다.

Q6. 구하라법이 상속 절차와 권리 명확화를 통해 △상속 절차를 개선하는 방법△이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상속인의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구하라법은 상속결격 사유에 의해서가 아닌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한 가정법원의 판결로 상속권을 박탈하

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해선 그 상속인에 대한 상속 상실의 청구를 하고 가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보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권의 박탈은 피상속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중대한 범죄 행위가 인정돼야 합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결국 가정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Q7. 구하라법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법적 원칙이나 판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당하게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어 상속과 관련한 국민의 법 감정에 합치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래의 법적 원칙이나 판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8. ‘구하라법’과 비슷한 사례가 외국에서 통과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입법의 방식은 다르지만 △독일△미국△오스트리아(Austria)△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9. 앞으로 구하라법이 상속 관련 법률 외에도 장기적으로 가정법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부적절한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유언의 의도)가 보장되고 보다 건전한 상속제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9-1. 구하라법의 규정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나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속권을 상실시키기 위해선 상술한 것과 같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는 당연히 분쟁의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더 많아질 것이며 관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구하라법의 도입은 타당해 보입니다. 결국 상속권의 상실 여부는 법원이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자
**유류분제도: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임의적인 재산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재산에 대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유류분권: 상속인들이 몇몇 있을 때 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한 비율만큼은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

정소희 기자 09sohee@hufs.ac.kr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 분	1차 모집	2차 모집
원서작성 및 서류접수	원서작성: 2024.10.01(화) ~ 10.10(목) 서류접수: 2024.10.01(화) ~ 10.11(금)	원서작성: 2024.11.05(화) ~ 11.14(목) 서류접수: 2024.11.05(화) ~ 11.15(금)
전형일	2024. 10. 26(토)	2024.11.30.(토)
합격자 발표	2024. 11. 08(금) 예정	2024.12.13.(금) 예정
온라인 입학설명회(예정)	2024.10.31.(목) 14:00 예정	
Webex를 통한 국제지역대학원 입학설명회 예정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나. 유엔평화대학 이종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일정

학 과 (전 공)	학 위
한국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구 분	1차 모집	2차 모집
원서작성 및 서류접수	원서작성: 2024.10.01(화) ~ 10.10(목) 서류접수: 2024.10.01(화) ~ 10.11(금)	원서작성: 2024.11.05(화) ~ 11.14(목) 서류접수: 2024.11.05(화) ~ 11.15(금)
전형일	2024. 10. 26(토)	2024.11.30.(토)
합격자 발표	2024. 11. 08(금) 예정	2024.12.13.(금) 예정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집중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가 양성을 목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마. 한국연구재단 HK+(인문한국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연구조교 기회 제공
바. 국제지역연구센터 프로젝트 연구조교 기회 제공
사. 신인생 및 재학생 등 각종 장학금 수혜 가능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한국의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나의 학보생활 첫 걸음

1094호에 첫 기사를 기고한 뒤 현재 1095호에 실을 기사를 준비 중이다. 내 첫 기사였던 큐텐(Qoo 10) 계열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 지연 사태를 다룬 사회문화 기사는 방종교육을 들으며 미리 준비했던 기사다. 방학 때까지만 해도 기사의 원인에 추측만 있을 뿐 확실하지 않았고 규모 또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또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 사례와 변경되는 피해 대처 방안 때문에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었던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첫 제안서 회의 때쯤엔 사건에 대해 파악된 사실이 보다 많아졌고 시의성 또한 충족했다고 생각해 예정대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가 통과된 뒤 기사를 작성할 때도 관련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었고 방종교육 때에 여러 차례 선배 피드백을 받았던 터라 기사 작성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그러나 기사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미리 준비한 제안서 초안은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려돼 새 주제로 제안서를 작성해야 했다. 처음엔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연합동아리의 마약 문제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합동아리에서 일어날 만한 문제점들을 작성한 뒤 △기사△블로그△에브리타임△타 학교 학보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찾아봤으나 이를 찾지 못한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문제가 일어난 동아리는 학내 동아리였고 연합동아리 관련 문제는 마약에 관한 이야기 외엔 찾아볼 수 없었다. 문제점을 찾지 못하니 기사 말미 부분에 들어갈 내용의 갈피 또한 잡을 수 없었고 결국 연합동아리 관련 심층 제안서 작성을 포기했다. 내 능력이 부족해 관련 기사를 다룰 수 없던 것 같아 속상한 마음과 함께 죄책감이 몰려왔다.

결국 새 학기를 맞이해 다시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종교의 포교 관련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사이버 종교의 포교는 나도 수차례 당했던 경험이 있어 기사로 다루기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취재를 하며 사이버 종교의 포교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여러 번 포교를 당했고 이에 대한 불만이 컸다. 또한 사이버 종교의 포교 방식을 알아보면 이들이 치밀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버 종교가 청년 신도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착취를 알고나니 화가 나기도 했다. 비록 연합동아리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진 못 했지만 이번 심층 기사에서 사이버 종교 주제를 다룸으로써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가 사이버 종교의 포교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며 관련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현재 1095호에 실을 심층 기사뿐 아니라 1096호에 들어갈 역동전에 대한 보도 기사도 준비하고 있다. 평소 같으면 축제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참여하기 귀찮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취재를 위해 축제 일정을 보며 무엇을 할지 미리 알아보고 관련 정보를 취합하니 앞으로 진행될 일정들이 기대됐다. 또 하나의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들의 노력이 투입된 것을 알게 됐다.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축제인 만큼 우리 학교 학생들도 축제를 충분히 즐기고 출전하는 선수들 역시 안전하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길 소망한다.

김민서 기자



[책 '뉴욕타임스 편집장의 글을 잘 쓰는 법'을 읽고] 탁월한 글쓰기의 기술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글쓰기는 △독자와의 소통△메시지 전달의 예술△정보의 명료화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복잡한 글쓰기의 세계에서 '뉴욕타임스(NewYork Times) 편집장의 글을 잘 쓰는 법'은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과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귀중한 책이다. 이 책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글쓰기의 기본 원칙이 현대 디지털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잘 보여줬던 것이다. 편집장이 강조하는 명확성과 간결성의 중요성은 정보 과잉의 시대에 더욱 두드러진다. 현대 시대의 독자들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하길 원한단 점에서 해당 방식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다.

독자 중심의 접근 방식과 관련한 조언 또한 유용했다. 독자의 관심과 필요를 반영해 글을 작성하는 방법이 현대 글쓰기에서 필수적인 점에서 맞춤형 스타일 설정을 통해 독자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책은 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도 제공한다. 현대 정보화 시대의 정보 소비 방식에 맞춰 편집장이 제시하는 접근 방식은 독자가 정보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 책에서 제시한 사실 기반의 신뢰성과 정확성은 기사 작성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의 신뢰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다.

또한 논리적 구성과 창의적 서술의 조화를 통해 독자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흥미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은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특히 편집장이 강조하는 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의 중요성은 글쓰기를 단순한 전달이 아닌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여기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끌면서도 논리적 전개를 통해 글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마지막에 담긴 정보 기술 환경에서 글쓰기에 대한 작가의 통찰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단순히 글쓰기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독자와의 교류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줬다. 이 책에서 통해 배운 원칙들을 현대 글쓰기의 복잡한 환경에서 활용한다면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소희 기자 09sohee@hufs.ac.kr

[영화 '위대한 쇼맨'을 보고]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위대한 열정, 위대한 우리

살면서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 어떤 이는 운동을 또 다른 이는 공부를 또는 미술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간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설령 내가 일반인들과 다른 사람일지라도 말이다.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내는 사람은 없다. 모든 이들은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고통이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더 큰 아픔으로 이어진다. <위대한 쇼맨>에선 이렇게 소외된 인물들을 모아 서커스 단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 관객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한다.

바넘(Barnum)은 하류층이었으나 상류층에 속해있던 체리티(Charity)를 사랑하게 된다. 체리티 또한 바넘을 사랑했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딸도 둘이나 낳으며 행복한 나날을 꿈꾸며 지냈다. 바넘은 당시 무역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의 배가 모두 침몰당해 직장을 잃게 된다. 이에 운영해 보고 싶었던 박물관을 만들게 됐지만 그마저도 폐업을 하게 된다. 그러다 딸의 말에 영감을 얻어 세상의 모든 독특한 사람들을 모아 서커스를 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는 다양한 단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설득해 성공적으로 공연을 치러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가의 평가는 저속하다는 것에 그쳤고 이를 해결하고자 상류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립(Philip)을 섭외하기 위해 노력한다. 설득 끝에 합류한 필

립 덕분에 공연은 하류층뿐만 아니라 상류층에도 인기를 끌게 되었다. 한편 필립은 공연하는 앤(Anne)을 보고 반하지만 상류층이란 자신의 위치를 신경 쓰다 오히려 앤에게 상처를 주고 만다. 한편 미국투어를 하던 중 걸모습에 대한 소외감을 느낀 단원들은 'This is me'를 부르고 바넘에 거부당한 오페라 가수 제니 린드(Jennie Lind)는 화감에 바넘과 자신의 가짜 스캔들을 퍼뜨리게 된다.

아내 체리티는 그를 옹호하며 떠났고 서커스장은 화재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 모든 것을 잃은 바넘은 좌절하지만 그를 믿어준 단원들의 돈을 모아 필립과 함께 다시 공연을 시작한다. 바넘은 이후 필립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겨주고 가족과의 오해를 풀며 돌아가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부정하는 태도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자세를 가진다면 걸모습 따위는 중요하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영화는 남들과 다를 수 있으나 이를 자신만의 개성으로 받아들이며 자신감을 가지다 보면 어느덧 내 스스로에게 떳떳해지는 나를 발견한다는 걸 보여준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한소영 기자 09soyoung@hufs.ac.kr

1094호 학보를 읽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학보의 새 발자국

무더운 여름의 열기가 한 풀 꺾이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학교를 찾는 학생들의 발걸음도 늘어났다. 힘찬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외대학보 또한 새학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외대학보 개강호인 1094호에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다.

3면에선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의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다뤘다. 우리학교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의 운영 현황에 대해 서두를 제시한 뒤 운영 미비의 원인으로 도서관학성위원회(이하 도학위)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도서관의 전반적인 관리 문제에 대해 도학위 측은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외대학보에서 제시한 우리학교 타 운영기관들의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 특별자치기구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아나가길 바란다.

4면에선 군 E-러닝의 하점에 대해 다루며 우리학교 군인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를 지적했다. 군 E-러닝은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이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외대학보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군 E-러닝의 강의 수를 늘리고 교수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다 잘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

7면에선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우리 사회의 문제와 엮어 청년들의 홀로서기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청년들을 대상

임채린(사회·미디어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94호 학보를 읽고

맑은 가을과 함께 새 학기를 맞이하며

가을의 맑은 날씨를 맞아 캠퍼스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학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새롭게 시작된 학기 속에서 외대학보는 △전원회의 아침밥 개선 방향△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 문제△군 E-러닝 문제점 등의 주제를 다루며 통해 우리 학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3면에선 한 학기동안 진행된 '전원회의 아침밥 사업 현황 및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이 다뤄졌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 완화 등 좋은 취지로 진행됐다. 하지만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판매량에 비해 과도하게 식권이 발행돼 이로 인해 잔반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선 메뉴 다양성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외대학보는 근로장학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잔반 처리량 공지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 타 학교의 모범 사례를 수용해 조리원과 학생 모두에게 불편함 없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4면에선 하반기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의 향후 과제가 이목을 끌었다.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설캠 총학 산하의 도서관학성위원회는 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미흡과 총학과의 소통 부족 문제가 지적돼 재인준이 부결됐다. 한편 과거 전학대회에서의 여러 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운영 방향 정립 및 개선을 통해 재인준에 성공했다. 다른 자치기구들도 영상사업단의 사

례를 참고해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학교 차원에선 자치회비의 체계적인 제도적 개선 등의 논의가 필요하며 학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절실하다.

한편 5면에선 군 E-러닝 제도의 하점이 조명됐다. 군 복무 기간에도 장병들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던 긍정적인 취지에 실효성이 부족하던 문제가 제기됐다. 우리학교가 운영하는 군 E-러닝은 부족한 강의 수로 인해 강의 신청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군 장병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교수 재량에만 의존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외대학보가 제시했듯 우리학교가 보유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를 적극 활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해 장병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이 보장되길 희망한다.

가을의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캠퍼스가 보여주는 생동감은 우리 모두가 가진 가능성을 드러낸다. 외대학보의 보도는 학생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조명하며 우리학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심 어린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싶다.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 개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외대학보 기자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펼쳐지길 희망한다.

박대희(국제지역·중앙아시아 22)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국 · 부장 고정칼럼

뿌린대로 거두기

천고마비의 계절이 코앞이다. 개강과 함께 코에 선선히 스며드는 가을 냄새는 1년의 후반부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부장의 직책을 달고 두 번째 마감에 참여하며 느낀 바가 적지 않다. 특히 모두가 자신의 기사에 최선을 다하며 투철한 취재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어찌면 나의 신입기자 시절보다 나은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싹이 트고 잎이 생기며 각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번 109호에선 열매들이 어떤 형태로 결실을 맺었는지 하나씩 읽어봤다.

먼저 4면에선 대학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대학교 증명서 발급은 학생들의 자산이자 귀중한 정보로 활용되며 각자가 살아온 삶에 대한 발자국이기도 하다. 특히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불편없이 필요에 따라 우리학교 학생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향후 해당 서비스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5면에선 단과대학별 공약 이행 평가 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다뤘다. 단위 대표자로서 공약뿐만 아니라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 역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약을 어음으로 해 학생 대표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 만큼 이를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기구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이를 학생회 스스로의 발전 동기로 삼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면에선 우리 학교 안을 배회하는 사이버 종교 단체와 관련한 문제

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포교 활동은 결국 자신을 더 큰 수렁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본인의 각별한 주의 이상으로 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 역시 필요하다. 좁게는 개인의 경각심이 넓게는 사회적인 예방 조치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8면에선 최근 음란 합성물의 제작 및 공유로 인해 급부상한 텔레그램(telegram)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관련 문제에 대한 처벌이 꾸준히 이뤄졌음에도 실질적인 텔레그램의 사용이나 제지는 불가능하며 이를 활용한 범죄 역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꼽힌다. 보안에 따른 자유와 규제에 따른 안전이란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 관련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길 희망한다.

이번 호의 기사들을 읽으며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평가할 만큼 잘 익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기자들의 눈부신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학보의 미래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이 서툴러 항상 좋은 말을 해주진 못했지만 스스로 변화하는 기자들을 보며 나도 그에 발맞춰 나아가고자 한다. 좋은 열매가 땅에 떨어져 좋은 거름이 되고 또 다른 나무를 성장시키듯 나 역시 그에 공헌하는 부장으로 남을 수 있길 희망한다.

이승원 부장 08seungwon@hufs.ac.kr

부엉이 메신저



선배, 항상 감사합니다. 오래된 거리처럼 계속 좋아할게요.

-미피-

오랜만에 본 너, 은근 새롭더라.

-익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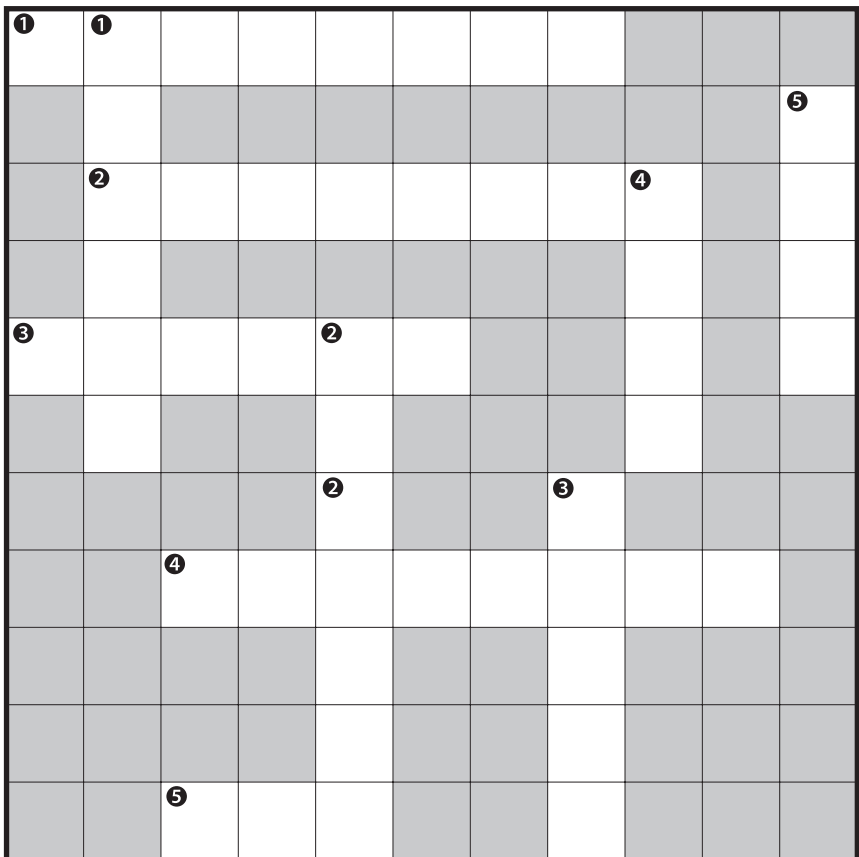
일하기 싫어^1024

-익명-

이제 종강할 때가 된 거 같아요

-개강핑-

십자말풀이



가로

- 우리학교 00000000본부는 졸업생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면)
- 당해 학생회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언급된 공약들의 실제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5면)
- 현재 일본 총리의 이름 (8면)
- 이번 국제수기에서 이서현(사범 · 프고 21) 씨가 파견된 00000000 (6면)
- 앱 텔레그램(telegram) 최고 경영자 파벨 두로프(Pavel Durov)의 출신 국가(8면)

세로

- 우리학교 학생들이 같이 사용하는 사설(3면)
- 우리학교는 지난달 14일 000 니카도 0000 쿠바 아바나 국립대학교 총정과 공식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1면)
- 위대한 열정, 위대한 우리는 00000을 읽고 쓴 칼럼이다. (10면)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9면)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Open Source) 메신저 프로그램 (8면)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누군가의 안전은 누군가의 위협

‘자유’와 ‘안전’ 그 둘이 충돌한다면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 더욱이 빨라지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논쟁도 매우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텔레그램(Telegram)을 둘러싼 논란은 이에 맞닿아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점화된 ‘딥페이크(deepfake) 디지털 성범죄’는 전 국민에게 공포를 안겼다. 이와 더불어 해당 범죄가 이뤄지는 곳이 주로 텔레그램이란 점이 알려지며 일부는 텔레그램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텔레그램이 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이유는 8면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텔레그램의 강력한 보안성과 이에 따른 익명성에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텔레그램이 각국의 수사기관에 쉽게 협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텔레그램은 여러 사람의 비난을 받고 우리의 디지털 무대에서 퇴출돼야 할 존재인 것인가?

잠깐 눈을 돌려 지난 2019년의 홍콩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홍콩의 민주화 시위 지도부는 문제의 텔레그램을 사용해 시위를 기획·전개했다. 지난 2022년의 이란 민주화 시위의 지도부 또한 텔레그램을 활용해 집결 시간과 장소를 전파했다. 이와 같이 어느 한 곳에서 텔레그램의 △보안성△수사 비협조△익명성은 정치권력의 압제에 대항하기 위한 약자의 절실한 무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됐다. 고액의 보석금을 납부한 후 풀려난 그는 “각 국가와 규제 관련 합의에 실패한다면 언제든 떠날 준비 돼있다”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기능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프랑스 수사당국의 움직임이 과연 어떤 나비효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 텔레그램이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데 위축된다면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는 정치적 약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텔레그램 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은 심각한 일임에 틀림없다. 범죄의 표적이 된 피해자들에게 있어 텔레그램이란 공간이 주는 위협은 ‘약간의 위협’이 아닌 ‘심각한 위협’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위의 이유로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수많은 정치적 약자들에게 있어 텔레그램의 상실은 ‘심각한 위협’일 것이다. 양쪽의 ‘심각한 위협’ 모두 보장하기 위해선 어떤 ‘나아가야 할 방향’이 필요할까. 이뿐만 아닌 수많은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지금, 가장 처음 언급한 질문에 대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남우현 편집장 07woohyun@hufs.ac.kr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7woohyu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남우현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정의를 수호하는 김주표 변호사를 만나다

김주표(서양어·스페인어 99)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LKS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민사△행정△형사 등 일반 송무 분야의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 기업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현재 김 변호사는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 출연 중이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방송 진행자로서 활동했으며 제일기획이란 광고회사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소통에 능한 법률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1. 우리학교 스페인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미국 변호사가 되길 희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에선 하나의 언어를 더 배우고 싶단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스페인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널리 쓰이는 언어라 나중에 유용할 것 같단 실용적인 접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Q2. 재학시절 인상 깊었던 일화가 궁금합니다.

제가 1학년 1학기엔 남자 중에서 성적으로 1등을 했어요. 그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후부터 음악과 친구들 덕분에 중간고사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취업은 했지만 졸업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교수 중 한 명이 연구실로 절 불러 과외를 해줬습니다. 이러한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Q3. 우리학교 합합 동아리인 'HUFS DOVY'를 창립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작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학교엔 작곡 관련 동아리가 없었죠. 그러던 중 대학원 건물에 합합 동아리를 만들고 있다는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20명 정도가 모여서 동아리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없으니 우리가 만들자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한 거였죠.

Q4.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도전해 보고 싶은 활동이나 공부가 있나요?

저는 항상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는 성격이라 생각나는 건 모두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 돌아가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 꼽자면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서구 문화를 직접 보고 경험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넓어졌을 수도 있겠죠.

Q5.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시절엔 'JKF'란 영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이 영화는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다룬 실화 기반 영화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진실에 다가가는 일을 해보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변호사란 직업에 영감을 받아 이 직업을 택하게 됐어요.

Q6. 광고와 방송에서의 경험이 변호사란 직업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광고와 방송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올림픽을 좋

아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은 선수들이 흘린 땀으로 평가받는 무대이기에 그 공정함과 가치가 제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올림픽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런 순수한 동기가 방송국과 광고회사란 두 분야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선 올림픽 메달 소식을 직접 전하는 캐스터가 될 수 있고 입사했던 제일기획이란 광고회사에선 올림픽 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제일기획에선 주로 해외 홍보를 담당했는데 이 덕분에 1년 중 3~4분의 1은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해외의 주요 파트너들과 많은 협업을 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을 했죠. 특히 런던에서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근로자들을 위한 두꺼운 가이드북이 전달됐는데 그 책엔 휴식 시간과 식사 메뉴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영국의 근로환경과 대조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선 벌어졌습니다. 밤낮없이 저와 함께 일하던 협업 회사의 사장과 대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대리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사장은 사업에 대한 부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제게 큰 충격이었던 이 사건은 영국과 우리나라 간 노동 환경 차이에 대해 깊게 고민하게 해줬습니다. 결국 이런 경험들이 저를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이끌게 됐죠.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거든요.

방송국에서의 경험도 중요했지만 그건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 제게 특별한 계기나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 방송업계의 현실적인 벽을 느끼며 빠르게 접게 됐거든요. 따라서 방송국에서의 경험은 하나의 과정이었고 제 성장을 위한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Q7. 변호사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국민 참여 재판 중 증인신문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피고인을 위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이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배심원들의 공감을 얻어 재판의 결과로 이어졌기에 더더욱 기억에 납니다.

Q8.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 만큼 책임감 없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남들과 타협하지 않는 소신과 의뢰인에 대한 집중이 전제된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9. 변호사 시험 합격 비결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시험은 응시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기계적으로 공부하기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제외하곤 특별한 대비가 필요 없다고 느꼈거든요. 또한 변호사 시험은 '수험'이란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부하는 것과 수험 준비는 다르거든요. 저 또한 처음엔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해 해당 시험에 낙방한 적이 있지만 이를 깨닫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Q10. 존경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학교 선배님인 최정규 변호사(이하 최 변호사)를 존경합니다. 그의 블로그도 예전부터 많이 방문했을 정도로 굉장히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최 변호사는 공익을 위해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Q11.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살진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 제 목표예요. 하루하루 남들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해보고 시도해 보며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많은 것을 두 번씩 도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대학교△방송국△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 시험△운전면허 등 삶의 여러 순간에 도전하며 실패하면서도 그 과정 모두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

다. 소박하지만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12. 변호사를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다면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학적성시험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해 주는 시험인 만큼 먼저 법학적성시험을 보고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점수가 낮으면 법전원 합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한편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한 후 스스로 그만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도전하고 지원하세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란 직업은 매우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열정과 적성이 있다면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국내 물류기업 중 가장 많은 360여 개 글로벌 네트워크와
세계 6위 수준의 해상화물 취급 물동량, 그리고 항공수출 물동량 국내 1위의 LX판토스!
LX판토스는 국내 업계 최초 글로벌 Visibility 관제 시스템과 e커머스 및 항공 물류 플랫폼을 통해
물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LX Pantos Global Networks | ASIA : China, HK, Japan, Indonesia, Singapore, Thailand, Vietnam, India, Philippines, Malaysia, Cambodia, Australia EUROPE : Netherlands, UK, Poland, France, Spain, Germany, Turkey, Sweden, Hungary AMERICA : USA, Colombia, Mexico, Brazil, Panama, Chile, Argentina CIS : Russia, Kazakhstan, Uzbekistan MIDDLE EAST : UAE, Saudi Arabia AFRICA : Egypt, South Africa

LX Pantos